

영생은 믿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성경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므로 물질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참 종교란?

종교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진리 구현이 종교요, 좀 더 알기 쉽게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만물을 영생체로 만드는 역사가 종교인 것입니다. 죽어서 영혼이 천당 간다는 것은 이견 마귀새끼가 온 세상 생명을 전부 죽이려는 작전인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구원,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그대로 성경과 불경을 본 사람들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 하니니 너희 마음속에 있느냐"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마음속에 있는 있는데 어떠한 마음이 천국이나 하는 것을 알려면 다른 성경 구절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송가에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나 하늘나라 들어가서 사람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종교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이비 종교인 것입니다.

이제그대로 이제 며칠 전에 한경진 목사가 영생교가 사이비 종교라고 이제 세계일보 신문에 났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사이비 종교의 정의를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라는 건 바로 오늘날 그 정도로 믿지 않는 게 사이비 종교이지 그 정도로 믿는 종교는 사이비 종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종교의 구비 조건

그러므로 이제그대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을 논하는 것이 종교인데 신분별도 못하고, 이제그대로 신에 대한 정의도 논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가 이제그대로 종교를 운운한다면 가소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신의 정의도 모르고, 신분별도 못하면서 이제 종교를 운운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구세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착각을 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종교의 구비 조건중 가장 기둥이 되는 조건이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없으면 그건 종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에 대한 정의를 모르면 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제그대로 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경속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요, 생명이 하나님이라 생명이 기록 되어 있는데, 사람 속에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풀 속에도 꽃나무 속에도 생명이 있고, 공기 속에도 있고, 또한 물 속에도 있고, 원소 속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그대로 분명히 그 경속에 쓰여 있는고로 믿으려면 경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그대로 오늘날 마귀의 신과 하나님의 신을 무엇으로 구분 하나면 바로 마귀는 바로 사망의 신이요, 사망의 신이 곧 죄가 되는 것이요, 죄는 곧 육신이라고 아고보서 1장 15절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죄라고 쓰여 있으니까 바로 육신 자체가 육신 부림이 아니요, 나라는 의식이 육신 부리는고로 나라는 의



구세주 조희성님

식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 모르면서 종교를 운운하니까 가소로운 것입니다.

나라는 의식이 곧 마귀

분명히 나라는 의식이 곧 죄요, 그리고 성경이나 불경 속에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하는 말이 있죠? 그 말을 왜 했나면 현재 너희는 마귀 마음을 품고 있다는 반대 의미가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마음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하는 말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 하는 말이 경속에 있는데 이 말씀은 현재 너희는 마귀 안에 있다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나라는 의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맹추들이 이제 쫓겨도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하니 참말로 한심한 것입니다.

나라는 의식이 바로 욕심을 부리는고로 「욕심=죄」요, 「욕심=나라는 의식」인고로 나라는 의식이 죄인 것입니다. 또한 죄는 마귀 종이요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나라는 의식이 마귀요, 나라는 의식이 죄가 되는고로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는 말은 바로 현재 너희는 마귀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분명히 나라는 의식이 마귀의 영이요, 마귀의 영이 바로 죄요, 죄가 원죄요, 원죄가 선악과가 되는 것이

입니다. 이름을 각각 다르게 붙인 건 마귀들이 인생들로 하여금 혼동을 가져오기 위해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는 의식이 전부 원죄요, 선악과요, 욕심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게 마귀니까 나라는 생각에 의해서 구성된 종교는 마귀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의식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단체, 나라는 마귀의 생각에 의해서 쓰여져 있는 글 자체가 마귀의 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도 없었고 학문도 없었던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곧 천국

천국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이 천국이요, 하나님이 계셔야 천국인 고로 하나님의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하는 말은 바로 이제 천국을 마음속에 건설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나라는 의식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났다가 되면서 부활함을 입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 말씀인고로 성경 말씀은 영적 말씀이요, 영적 말씀이면서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이니깐 바로 하나님의 영의 부활을 논한 것이지 예수의 몸의 부활을 논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도 안 했지만 예수가 부활을 했다 하더라도 성경상의 부활론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바로 생명이요, 양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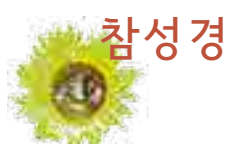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영, 양심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마귀 속에 간혀있고로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했고, 부활함을 입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나라는 의식이 마귀니까 영적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무덤을 파하고 이제 영적 무덤 속에 간혀있는 하나님의 영이 부활함을 입어서 나라는 의식이 되어라 하는데 이것을 주인공이 아니면 바로 해석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생명의과일을 먹어야 구원 얻는다는 말은 바로 생명의과일은 성경 말이요, 성경 말은 영적 말이요, 영적 말이니까 영적 과일이요, 영적 과일이 영인고로 영은 영인데 영생 주는 영인고로 영생 주는 영은 사망의 신을 이기는 영인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영이요, 나를 이기는 하나님의 영이 생명의과일 인고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이 생명의과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기독교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는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성경에 "말세에 믿는 자를 찾아 볼 수 없다."는 말씀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건 언제 나오나면 말세가 되어야 구세주가 그때 나오고 구세주가 나와서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구세주는 바로 마귀를 이긴자가 구세주요, 사망권을 이긴자가 구세주요, 나를 이긴자가 구세주인 것입니다.*

1992년 7월 22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핵욱 기자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참성경

(13) 마할랏이 야곱을 죽이려는 예서의 분노를 진정시키다

(지난호에 이어서)

남편 이삭의 말을 이어받은 리브가는 전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일러주신 계책을 야곱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야곱아, 잘 들어 명심하고 어미가 시키는 대로 이행하여야 된다. 외삼촌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첫째 딸은 마흔을 바라보고 둘째 딸은 이제 갓 서른을 넘은 것으로 안다. 외삼촌이 너의 나이를 묻거든, 지금 일흔일곱의 나이를 감추고 스무살을 낮춘 선일곱이라고 대답하여야 된다. 이 계책은 이 어미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그리 알아라.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젊고 늙음의 기준을 나이의 적고 많음에서 찾지 아니하시고 그 당사자 기력의 강약으로 판단하심이라. 지금 너의 육신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만하니 누가 보아도 사오십대로 볼 것이다. 그럼 주님께 의지하고 몸성할 잘 다녀오라!"

야곱은 어머니로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나의 형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취했는데,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나의 나이를 속여 그의 딸을 취해야 하구나!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의 이름을 속이는 자야곱이라고 지었다

말인가?" 하고 자신의 처지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후로 야곱은 자신의 이름에 대한 콤플렉스(열등감)를 가지게 되었습니다.¹

《3장 야곱의 하나님》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태어난 쌍둥이 야곱은 경쟁해서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위인이었습니다. 그가 압박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적에 날이 새도록 붙들고 놓지 않더니 결국 자신의 의사대로 천사의 축복을 받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1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 60세에 야곱을 낳았습니다. 한편 아브라함보다 한 살 적은 나홀이 77세에 분처 밀가가 낳은 여덟 명의 아들 중 막내 브두엘을 낳고 브두엘 30세에 아들 라반을 낳았으므로, 라반은 이삭보다 6살 손아래요, 야곱보다 54살 손위입니다. 그리고 라반 94세에 첫째 딸 레아를 낳았고, 라반 100세에 둘째 딸 라헬을 낳았습니다. 따라서 야곱 77세에 외삼촌 라반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는 레아는 37살이요, 라헬은 31살이었습니다. 물론 야곱보다 54살 더 많은 외삼촌 라반은 131살이었습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이 180세까지 장수하였듯이 이삭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라반도 야곱이 자신의 집에서 20년 간 머슴살이와 같은 연단 과정을 겪고 고향 브엘세바로 돌아갈 때까지 151세로 생존하였습니다.

《3장 야곱의 하나님》

(1) 야곱이 본 사닥다리의 꿈



야곱의 꿈(Jacob's Dream, 1557-58)_ 조르조 바사리(Giorgio Vasari) 작

리하여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고 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새이름을 갖게 됩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선물로 축복하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일부터 인간 야곱에게 저주신 것입니다.

(1) 야곱이 본 사닥다리의 꿈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 가운데 차남 야곱이 장자축복을 받게 된 것이지만, 마귀의 조종을 받는 죄인(罪人) 입장에서 바라보면 마치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서 역시 자기 자신이 동생 야

한데 장자축복을 가로채었다고 착각하여 동생을 죽이려는 원한까지 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여 야곱은 형 에서의 살기 띤 분노를 피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북쪽으로 나아갔습니다. 빈들에서 헤가 저물었습니다. 잠잘 곳이 없는 야곱은 그대로 빈들에서 차가운 돌을 베개로 삼고 이슬을 맞으면서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77세가 되도록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외갓집을 찾아가는데 브엘세바에서 외갓집 하란까지는 너무나 먼 길이었습니다. 북쪽으로 800킬로(2000리 이상)가 되는 곳입니다. 여러 날 걸어서 외가에 찾아가다가 야곱이 너무나 길을 걸어온고로 고단하게 잠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야곱이 베고 있는 돌베개 곁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놓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눈빛갈 같은 환운을 너울거리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가운데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야곱아,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은 모래알처럼 불어나 동서남북 세계 어느 곳이나 퍼져나가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언제나 너와 같이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마. 나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네 곁에서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다

이 놀라운 말씀에 야곱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둥을 부은 다음 그 자리에 '벨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하며 말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위에 기름을 붓고

2 '벨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본래 이곳의 지명은 도피처라는 뜻을 지닌 '루스'였습니다.

19절: 그 곳 이름을 벨엘(하나님의 집)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십일조)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은 다시 계속해서 길을 걸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동쪽으로 얼마 안 가서 하란 코밀에 있는 밧단아람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선 자리에 우물이 한 군데 있고, 그 둘레에서는 양 떼들이 세 무리로 흠어져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 우물은 양 떼들이 마시는 우물이었는데, 돌로 만든 커다란 뚜껑이 덮여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있는 양치는 목자 곁으로 가서 "혹시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자는 양떼를 몰고 오는 처녀를 가리키면서, "저기 양떼를 몰고 오는 저 처녀가 바로 라반의 딸 라헬이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야곱은 이 말을 듣고 열린 우물을 덮은 뚜껑을 열고 라헬이 몰고 온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라헬에게 입을 맞춘 다음 야곱은 소리 내어 울면서, "나는 당신의 아버지의 생일이요 바로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하니, 라헬은 반가움과 놀라움으로 어쩔 줄을 모르다가 그대로 아버지에게 뛰어와 앉았습니다.*

안젤라